

To. 미래에게

책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안녕? 미래야? 나는 은서 라고 해. 너의 이야기를 읽고
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너의 일상생활을 공개하고, 가족 모두 관련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신 부모님과 아무것도 모른채 그냥 너를 부러워하는 친구들 사이
에서 네가 정말로 마음고생이 심하였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한 순간의
오해로 사이가 멀어진 친구들과의 사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는 모습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어. 너는 너와 친구들과의 사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도 느껴졌거든.

한편으로는 나에게 너와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나도 너처럼 친구
를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면서 '난 친구를 진짜로 진정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
으로 대했나?' '친하다는 이유로 그 친구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 한 순간의 오해로 멀어진 친구와의 사이를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너의 행동에 나도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거야. ^^

그리고, 책이나 블로그 속의 너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하는 너의 용기에 박수를 쳤어. 너의 원래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을텐데도 그렇게 너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려고 한게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았거든.

나도 너의 그런 점을 정말로 본받고 싶어. 내가 너였다면 난 친구들이 알고있던 나와
많이 달라서 실망을 할까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기도 전에 두려워서 포기하였
을 지도 몰라. 그렇지만 넌 용기를 내어서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
넌 정말로 용감하고 대단한 것 같아.

앞으로도 네가 너의 부모님이 글을 올리는 대로 너의 모습을 변하게